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논쟁*

안 치 영**

목차

서론

- I. 개혁 초기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제기의 배경
 - 1.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
 - 2. 개혁전후의 이론 논쟁
 - II.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1.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논쟁의 전개
 -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제기
 - III.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 대한 비판과 그 확산 제한의 원인
- 결론

서론

중국의 개혁을 전후하여 많은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 개혁체제 형성의 계기가 되는 ‘진리의 검증 기준에 대한 토론(眞理標準討論)’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나 문예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그러한 논쟁은 개혁체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332-2008-1-B00270)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제의 형성과 더불어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것은 학술적 이론적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책 방향의 차이와 사상적 차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심지어는 격렬한 정치적 비판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정치적 비판운동은 물론 정치적 논쟁의 경우도 쟁점을 둘러싼 논쟁 자체는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논쟁의 결과와 공산당의 방침과 결정에 따른 비판 외에는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내부 당안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치논쟁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논쟁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당시에 내부발행이나 공간된 논쟁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¹⁾ 물론 그러한 자료들은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회고록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부에서도 많은 회고록이 출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외부에서 정치논쟁 과정에서 비판받은 지식인들의 회고록이 출간되었는데, 그러한 회고록에는 공간된 자료뿐만 아니라 내부발행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실제 논쟁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²⁾

이 글에서는 개혁초기에 이루어진 정치논쟁 중 중국에서 ‘단계 풍파(階

-
- 1) 1979년부터 내부연구와 참고용으로 연 200회 간행된 내부자료인 『經濟研究參考資料』(社會科學出版社)에 많은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三聯書店編輯部 編, 『關於按勞分配問題: 經濟學界1977年3次討論會發言彙編』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8; 三聯書店編輯部 編, 『關於按勞分配問題: 經濟學界1978年第4次討論會發言彙編』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9이 대표적이며, 진리표준론과 관련된 『哲學研究』編輯部 編, 『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問題討論集』1, 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등이 있다.
 - 2) 대표적인 것으로 馮蘭瑞, 『別有人間行路難: 1980年代前後中國思想理論風雲及其他』時代國際出版有限公司, 2005; 王若水, 『胡耀邦下臺的背景: 人道主義在中國的命運』明鏡出版社, 1997; 李洪林, 『中國思想運動史(1949-1089年)』, 天地圖書, 1999 등이 있다.

段風波)로 불리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려고 한다. ‘단계 풍파’는 1979년 5월 쑤샤오즈(蘇紹智)와 펑란루이(馮蘭瑞)가 공동으로 『경제연구(經濟研究)』 잡지에 발표한 글³⁾로부터 촉발된 중국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와 성격 규정과 관련된 논쟁이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단계와 관련한 이론적 정치적 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소련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⁴⁾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단계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그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논의는 문화대혁명 발생을 즈음한 이론적 경색과 더불어 중단되었다가 개혁을 전후하여 재생하였다. 그런데 ‘단계 풍파’는 그러한 논의와도 연관되지만 주요하게는 당시 중국 사회주의 발전 단계 및 성격 규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단계 풍파’에 대한 논쟁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확립과 더불어 종결되는데, 그것은 ‘단계 풍파’가 개혁의 내용과 방향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단계 풍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개적인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핵심적 논의는 제한된 범위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개적인 비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단계 풍파’에 대한 소개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상세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2005년 논쟁의 직접 당사자인 펑란루이가 상세한 경과를 소개하면서 비로소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⁵⁾ 이후 중국에서도

-
- 3) 蘇紹智·馮蘭瑞, 「無產階級取得政權後的社會發展階段問題」, 『經濟研究』 1979年 5期.
 4) 辛力 選編, 「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毛澤東 關於過渡時期,社會主義社會的部分論述(上)」, 『經濟研究參考資料』 總215期 1980年 1月 25日; 辛力 選編, 「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毛澤東 關於過渡時期,社會主義社會的部分論述(下)」, 『經濟研究參考資料』 總 216期, 1980年 1月 26日; 馮蘭瑞, 「金日成同志關於過渡時期問題的一些論述」, 『經濟研究參考資料』 總 216期, 1980年 1月 26日.
 5) 馮蘭瑞, 「1979年「階段風波」的前前後後」, 앞의 책, 2005, pp. 91-164.

연구가 이루어지고⁶⁾, 관련자들이 글도⁷⁾ 발표되고 있지만, 그것의 중요성에 비하여는 여전히 연구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을 둘러싼 논쟁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그것이 중국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 우선, 그 배경이 되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논의와 개혁 전후 이론 논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혁초기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논쟁의 전개 과정과 그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지만 확대되지 못하고 제한된 원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은 중국 개혁의 성격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지만 본고에서는 그와 관련한 논의를 제외하도록 하겠다.

I. 개혁 초기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제기의 배경

‘단계 풍파’를 초래한 개혁초기의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문혁이 끝난 후 문혁 시기의 잘못된 이론에 대한 바로잡기와 관련된다. 1977년부터 시작된 잘못된 이론에 대한 바로잡기 과정에서는 잘 알려진 진리표준토론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예 문제 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초기에는 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는 바로 그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는 개혁 전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

6) 李寧, 「1979年‘階段風波’的思想史解讀」, 『貴州財政學院學報』2009年 6期.

7) 于光遠(2008b), 「從‘階段風波’到社會主義初級階段」, 『炎黃春秋』2008年 8期.

을 뿐만 아니라,⁸⁾ 마오쩌둥과 심지어는 김일성에 의하여도 이루어졌다.⁹⁾ 그것은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주의에서 보편성을 갖는 이론적 실천적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도)’과 사회주의 발전단계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문혁을 즈음한 시기에 중단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혁 초기에 제기된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는 개혁 전후의 새로운 이론적 모색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이론적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상황과 개혁전후의 이론 바로잡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즉 공산주의 고급단계)로의 전환이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 하나라면,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공산주의로의 전환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이자 공산주의 1단계인 사회주의를 거쳐 2단계의 전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후자는 다시 사회주의 사회 진입 기준을 사회주의 사회 완성으로 보는가와 생산수단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방식에서의 개조의 기본적 완성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하나의 단계라고 보는 관점을 ‘대과도(大過渡)’라고 하고, 2단계 전환론 중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완성 까지를 하나의 이행 단계로 보는 관점을 ‘중과도(中過渡)’, 자본주의에서

8) 辛力 編, 앞의 글.

9) 위 글; 馮蘭瑞(1980), 앞의 글.

생산수단 소유제의 사회주의적 방식으로의 전환의 기본 완성까지를 하나의 이행 단계로 보는 관점을 ‘소과도(小過渡)’라고 한다.¹⁰⁾

그런데 중국에서 1953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는 신민주주의 사회를 폐기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선언한 ‘과도시기 총로선(過渡時期總路線)’이 제기된 이후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53년부터 1979년까지 공간된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대한 글이 1950년대 110편, 1960년대 35편 그리고 1970년대에 42편이 있다.¹¹⁾ 그런데 1958년 19편, 1959년이 74편, 1960년이 19편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 나온 글의 대부분이 대약진운동 기간에 나왔으며, 1961년 8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에 나온 것은 매년 많으면 5편에서 1-3편에 불과하다. 1964년 2편이 실린 후 문혁기간에는 1974년 1편만 실렸을 뿐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문혁 이후인 1977년부터 논의가 재개 된 후 1979년에는 무려 39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가 1958부터 196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약진운동기간인 그 기간 동안 비현실적인 고도성장과 공산주의로의 빠른 진입이 목표로 제시되고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논의는 중국이 곧바로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현실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1956년 중국 공산당 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언한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기본적인 완성을 전제한 공산주의로의 진입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2단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0) 程非, 「社會主義社會發展規律問題」, 學術討論會討論要點, 『經濟研究參考資料』 增刊, 1979年 12月 31日, pp. 2-3.

11) 馮蘭瑞(2005), 앞의 책, pp. 97-8. 그런데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글에 대한 통계자료는 내부잡지인 『經濟研究參考資料』에서 1981년 增刊으로 펴낸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學術資料室 編, 『社會主義經濟理論報刊文章目錄索引(1949-1979)』, pp. 27-32에 의한다. 색인의 편자도 지적하다시피 목록에는 누락이 있지만, 그 시기 공간된 경제이론에 대한 글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후 조정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1962년 1월 7천인대회에서 논의된 대약진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대하였으며, 그해 7-8월의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와 8기 10중 전회에서 사회주의에서 계급과 계급투쟁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이른다.¹²⁾ 그에 따라 1963년 이후 공산주의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단계로 보는 대과도의 관점이 제기되게 된다. 그것을 정식화한 것이 1963년 6월 14일 발표한 중국공산당이 소련공산당에 보낸 25개조로 이루어진 “국제 공산주의 운동 총로선에 관한 건의” 18조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모두 공산주의 사회 고급단계 이전은 모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과도시기에 속하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이다”라고 한 것이다.¹³⁾ 이른 바 ‘대과도’의 관점이 공식화된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 중국에서 ‘계급투쟁 중심(階級鬪爭爲綱)’이 중국공산당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1963년부터 문혁시기까지는 ‘대과도’의 관점이 지배적이 되며,¹⁴⁾ 1965년부터 문혁이 끝날 때까지 발전단계에 대하여는 1편의 글만이 공간되었을 뿐이다.¹⁵⁾

12) 錢序理, 『歷史的變局: 從挽救危機到反修防修』,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pp.107-111; 271-280.

13) 馮蘭瑞(2005) 앞의 책, pp. 103-4;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關於國際共產主義運動總路線的建議: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對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1963年3月30日來信的復信(1963年6月1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6冊), 中央文獻出版社, 1997, pp. 447-8.

14) 1963년과 1964년에 3편의 글이 발표되는데, 그 글은 모두 레닌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의 전체과정을 하나의 단계로 보았으며 그 사이의 과도단계인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전체 과정동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글이다(康華琴, 『如何理解“過渡時期”這個概念』, 『學術月刊』1963年10期, pp. 29-33; 賈英凡, 『從資本主義到共產主義的整個過渡時期始終需要無產階級專政』, 『戰線』1964年15期, pp. 5-8; 李又華, 『列寧論社會主義就是消滅階級』, 『學術研究』1964年1期, pp. 1-5.

15) 林潤峰, “堅持共產主義的兩個發展段階的原理” 『哈爾濱日報』(1974.8.13). 유일한 글이 2단계 발전론을 주장한 것은 의외인데, 그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혁이 끝난 이후 다시 발전단계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최초의 논의는 저명한 개혁이론가의 하나인 쉘무차오(薛暮橋)가 1977년 7월부터 8월까지 『광명일보(光明日報)』에 4차례에 걸쳐 “과도시기 경제영역의 두 가지 길의 투쟁(過渡時期經濟領域中的兩條道路鬭爭)”을 연재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1978년에는 2편의 글만이 발표되었지만, 1979년 39편의 글이 발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한 논의는 대체로 ‘대과도’의 관점에 대한 부정과 중국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97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문혁 이후 문혁 시기의 이론적 오류에 대한 바로잡기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2. 개혁전후의 이론 논쟁

1976년 문혁이 끝난 후 문혁시기의 정책 전환과 더불어 문혁이 남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그것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경제 이론문제에서부터 문혁시기의 잘못된 이론과 비판에 대한 바로잡기가 시작된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 문제와 그와 관련된 물질 유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하여, 사회주의 모델의 다양성 문제, 문혁시기 생산력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생산력론(唯生產力論)’으로 비판한 것에 대한 반비판, 사회주의 생산목적론 문제 등 경제문제에 대한 일련의 논쟁이 진행된다.¹⁶⁾ 또한 1978년부터는 진리의 검증 기준 문제를 둘러싼 진리표준토론이 시작되고,¹⁷⁾ 1979년부터는 문혁시기의 문제와 상처를 폭로하는 ‘상흔

16) 韓鋼, 『最初の突破: 1977, 1979年經濟理論大討論述評』, 『中共黨史研究』 1998年 6期, p. 25; 于光遠(2008a), 『背景與論題: 對改革開放初期若干經濟理論問題討論的回顧』, 『經濟科學』 2008年 6期.

17) Michael Schonhals, "Th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The China Quarterly*, Vol. 126, 1991;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13집 1호, 2004.

문학'에 대한 비판을 둘러싼 문예논쟁이 시작된다.¹⁸⁾ 사회주의 발전 단계 문제와 관련한 '단계 풍파'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최초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론 논의는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에 대하여는 1977년에 3차례, 1978년에 1차례 등 모두 4번의 대규모 토론이 개최되었다.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론에 대한 비판을 4인방 폭로 비판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¹⁹⁾ 노동에 따른 분배 문제와 관련된 토론의 핵심 문제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것이었다.²⁰⁾ 그런데 문혁시기 마오쩌둥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²¹⁾ 그것에 반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물질 유인 도입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되었다. 1977년에 이루어진 3차례의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전체 43편의 글 중 3편이 물질유인과 관련된 글이었지만,²²⁾ 1978년 4차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53편의 글 중 10편이 물질유인과 관련된 글이며 6편이 보너스 관련 글이었다.²³⁾ 이것은 결국 평균주의적 분배를 부정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모델의 다양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고위 경제사절단의 동유럽과 서유럽 방문 및 1978년 7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된 국무원이론회의에서의 논의와 관련된다.²⁴⁾ 1978년은 대외개방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

18) 蕭冬連, 2008,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pp. 211-8.

19) 三聯書店編輯部 編(1978), 앞의 책, p.1; 韓鋼, 앞의 논문, p. 26.

20) 韓鋼, 위 논문, p. 28.

21) 위 논문, p. 28.

22) 三聯書店編輯部 編(1978), 앞의 책.

23) 三聯書店編輯部 編(1979), 앞의 책.

로 시작된 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혁시기의 폐쇄와 대비되는 중국지도자들의 대대적인 해외 방문이었다.²⁵⁾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외경제 담당 국무원 부총리 구무(谷牧)를 대표로 하는 서유럽 5개국 방문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및 동유럽과 서유럽 등의 국가의 농업과 경제계획, 기업관리 등에 대한 고찰단이 파견되어 고찰 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했다.²⁶⁾ 그러한 고찰의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 사회주의 발전 모델에 대한 모색과 관련된다. 이셴넨(李先念)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이론회의에서는 외자와 기술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방법을 논의했다.²⁷⁾ 그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 발전 모델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으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과 관련된다.²⁸⁾

유생산력론 비판은 문혁시기에 이루어진 생산력이 생산관계에 대한 규

24) 于光遠(2008a), 앞의 논문, pp. 7-8; 『李先念傳』編瀉組·鄂豫邊區革命史編輯部, 『李先念年譜』5卷, 中央文獻出版社, 2011, p. 625.

25) 당시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와 전국인대 부위원장 급 이상의 지도자들 13인이 21차례에 걸쳐 51국에 대한 해외 방문을 했다(劉國新 外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史長編 第4卷 1978-1991』天津人民出版社, 2010, p. 20).

26) 1979년부터 년 20회 발행되기 시작한 경제연구를 위한 자료인 내부 간행 잡지 『經濟研究參考資料』에 1978년과 1979년 동구, 구미, 일본에 대한 고찰 보고가 15회 게재되었으며, 소련과 동구와 구미 등의 경제에 대한 소개가 29회 게재되었다.

27) 국무원이론회의에 대하여는 『李先念傳』編瀉組 編 『李先念傳(1949-1992)』中央文獻出版社, 2009, pp. 1055-1071; 朱玉, 『李先念與1978年的國務院務虛會議』, 『中共黨史研究』2005年 1期, pp. 101-111; 李正華, 『1978年國務院務虛會研究』, 『當代中國史研究』2010年 2期, pp. 4-13 참조.

28) 당시 중공대외연락부 부부장 李一氓은 1979년 10월 30일-11월 6일 江蘇省 無錫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사회 발전 규율 문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무엇이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 발전 규율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발전의 청사진도 없으며, 4개 현대화 그 자체를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4개 현대화와 사회주의의 관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程非, 앞의 글, p. 2).

정적 작용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한 비판은 마오쩌둥이 소련의 『정치경제학교과서』을 읽고 피력한 “생산관계를 우선 변화시켜야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다”라는 인식에서 기원한다.²⁹⁾ 문혁 이후 1977년부터 그것에 대한 반비판이 이루어진다. 유생산력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1977년 위광위엔의 주장이³⁰⁾ 그 시초이며, 1978년 초 린즈리(林子力)와 요우린(有林)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의 전거를 들어 생산력이 사회발전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린 바오와 사인방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와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전도시켰다고 비판했다.³¹⁾ 이러한 비판은 개혁이론의 출발이 되는 “생산력 발전이 사회주의의 근본 임무”라는 덩샤오핑의 입론과 직결되는 개혁의 이론적 기초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이론적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전환적 의미를 갖는 진리표준토론이었다. 진리표준토론은 “마오쩌둥의 말과 결정이 절대적 진리”라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입론인 ‘양개범시(兩個凡是)’를 부정하는 정치적 논쟁이었다. 그 결과는 덩샤오핑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사상해방’이 선언된 1978년 말 중국공산당의 중앙공작회의와 11기 3중전회와 밀접하게 관련된다.³²⁾

‘사상해방’의 선언은 당 내외적으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새로운 백가쟁명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1979년 초 ‘사상해방’을 확대하고 개혁개방을 위한 과감한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당 내부회의인 이론공작회의를 개최하였다.³³⁾ 그런데 당 내외에서의 과감한

29) 韓鋼, 앞의 논문, p. 30.

30) 于光遠, 『我承認自己是‘唯生產力論’者』, 『于光遠短論集(1977-2001)』 1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pp. 18-20.

31) 林子力·有林, 1978, “歷史唯物論還是歷史唯心論?: 對四人幫‘批判唯生產力論’反批判”, 『哲學研究』 1978年 1-2期, pp. 3-29.

32) 안치영,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2008.

논의는 문혁이 끝난 후부터 11기 3중 전회까지 4인방에 대한 폭로비판과 ‘양개범시’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졌던 공산당 내부의 문혁 반대세력들의 세력 분화를 초래했다. 이들은 이론공작회의에서부터 개혁을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개혁과 보수 혹은 우파와 좌파의 분화를 시작하였다.³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론공작회의에서의 ‘4항 기본원칙’의 제기이다. ‘4항 기본원칙’은 ‘사상해방’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자 개혁개방의 방향과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중국의 개혁은 ‘사상해방’과 ‘4항 기본원칙’ 사이로 그 범위가 한정되게 되었으며,³⁵⁾ 이론적 논쟁도 그러한 제한에 의하여 규정받게 되었다. 시기와 상황의 변화와 당내 정치세력들의 역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호 모순적인 경향성을 지닌 ‘사상해방’과 ‘4항 기본원칙’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졌으며 그에 따라 이론논쟁의 폭과 범위도 가변적이었다.

‘4항 기본원칙’이 제기된 이후 공산당 내부의 보수 세력들은 ‘4항 기본원칙’을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제한하려고 한 반면, 개혁세력들은 ‘11기 3중 전회의 정신’(즉, ‘사상해방’)을 통하여 ‘4항 기본원칙’을 해석함으로써 그것의 개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³⁶⁾ 그러한 상황은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본격적인 이론적 논쟁의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많은 정치적 이론적 주장과 논쟁과 비판이 이어지게 된다.

33) 안치영, 2012,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년 이론공작회의』, 『중국근현대사연구』 54집; Merle Goldman, "Hu Yaobang's Intellectual Network and the Theory Conference of 1979", *The China Quarterly*, Vol. 126, 1991.

34) 이러한 분화의 발생에 대하여는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 동의한다. 개혁파의 견해는 李洪林, 앞의 책, pp. 263-272, 보수파의 견해는 鄧力群, 『鄧力群自述: 十二個春秋(1975-1987)』 大風出版社, 2006, p. 139 참조.

35) Tang Tsou,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ao Reforms: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251-8.

36) 李洪林, 앞의 책, pp. 267-70.

이론공작회의 이후 공산당과 이론계의 분화를 기초로 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많은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한 논의에는 사회주의 생산목적 논쟁, 문예 논쟁 및 정치적 자유와 개혁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비판 등 광범한 내용을 포함했다.³⁷⁾ 그 중 사회주의 발전단계와 관련된 논쟁은 이론공작회의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한 논쟁의 하나였다.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을 둘러싼 논쟁이 1979년과 1980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생산 목적 논쟁은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 부분별 균형 문제와 더불어 생산과 생활을 관계 즉,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인민 생활의 행복을 위한 생산이자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 등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였다.³⁸⁾ 1979년 이후 문예계에 대한 대규모 복권이 이루어지고 문혁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흔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하여 “문예계가 인민의 ‘덕을 노래해야(歌德)’ 하는데, ‘부덕한(缺德)’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소위 ‘덕에 대한 노래(歌德)’과 ‘부덕(缺德)’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³⁹⁾ 그러한 문예논쟁의 정점이 1981년 바이화(白樺)의 영화 대본 『고련(苦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의 문제나 봉건적 영향의 숙청 문제,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를 포함한 정치체제 개혁 문제 등도 제기되었지만 좌절되었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서로 다른 영역과 내용으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 문제에 대한 공산당의 통일적 관할의 기초 위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37) 위 책, pp. 263-291.

38) 于光遠(2008b), 앞의 글 p. 10; 馮蘭瑞, 앞의 책, pp. 194-5.

39) 蕭冬連, 앞의 책, pp. 211-8.

40) 李洪林, 앞의 책, pp. 272-290.

II.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1.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논쟁의 전개

‘단계 풍파’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은 『경제연구』 1979년 5기에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 “무산계급이 정권을 획득한 이후의 사회발전 단계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 글은 원래 1979년 2월 5일 이론공작회의 소조회의에서 쑨샤오즈와 평란루이가 연명으로 발언한 것을 공간되는 잡지에 게재한 것이었다. 『경제연구』에 쑨샤오즈와 평란서의 글이 실린 후 그것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었다. 공개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 공개적인 비판은 1979년 『경제연구』 8기에 실린 인민대학 교수 주슈시엔(朱述先)의 글이 유일했으며,⁴¹⁾ 내부적인 비판과 논쟁은 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중앙선전부에서 이루어졌다. 공개적인 논쟁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발전단계론 비판에 대하여 이론계에서 호응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중앙선전부에서 내부적 논의 과정에서 비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비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론 논쟁의 지형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판이 반복적으로 재개되었다.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은 1)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에서 공산주의가 지칭하는 것이 발전한 공산주의인 고급단계의 공산주의인지 공산주의의 1단계 즉, 사회주의사회인지 2)무산계급이 정권을 획득한 후부터 공산주의 고급단계까지의 시기에 대하여 단계 구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3)중국이 저발전 사회주의 단계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시기(과도)에 있으며 중국의 경제체도가 발전한

41) 朱述先, 「也談無產階級取得政權後的社會發展階段問題: 與蘇紹智·馮蘭瑞商榷」, 『經濟研究』 1979年 8期.

혹은 완전한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⁴²⁾ 쑨샤오즈와 펑란루이는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자본주의에서 이행하는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의 1단계인 사회주의사회라고 보았으며,⁴³⁾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조차도 무산계급이 정권을 획득한 후 발전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까지는 몇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고 주장한다.⁴⁴⁾

이 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마오쩌둥의 비서를 역임하였으며 당시 중공 중앙의 부비서장이자 사회과학원원장이었으며 이후 중공중앙서기처 서기로서 당의 ‘이데올로기 짜르’로 불리게 되는 후차오무(胡喬木)와 당시 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이후 중공중앙선전부장이 되는 덩리쥘(鄧力群)이 문제 삼으면서 대규모 비판 운동을 준비했다.⁴⁵⁾ 후차오무는 6월에 쑨샤오즈와 펑란루이의 관점은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기준으로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데, 마르크스가 당시에 제기한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경제연구』에 쑨샤오즈와 펑란루이의 글을 비판하는 글을 신도록 지시한다.⁴⁶⁾ 또한 후차오무는 당시 자신이 관할하고 있던 국무원연구실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과도시기와 사회주의에 대하여 논술한 자료를 정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글을 써서 비판하려고 한다.⁴⁷⁾

덩리쥘은 7월 5일 사회과학원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쑨샤오즈와 펑란루이의 글과 더불어 『국내철학동태(國內哲學動態)』 1979년 5기에 실린 타오더룽(陶德榮)의 “사회주의에 관한 소견(關於社會主義的一點淺見)”이라는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중

42) 蘇紹智·馮蘭瑞, 앞의 논문.

43) 위 논문, pp. 15-6.

44) 위 논문, pp. 16-8.

45) 于光遠(2008b), 앞의 글, p. 2.

46) 馮蘭瑞, 앞의 책, p. 113.

47) 于光遠(2008b), 앞의 글, p. 3.

양이 중시하여 정·부(正·副) 비서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앙선전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것은 학술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치문제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⁴⁸⁾ 또한 여기에 대하여 비판을 하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공개적인 간행물은 물론 내부 간행물에도 게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수를 인쇄하여 중앙에 보내는 것만 허용했다.⁴⁹⁾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7월 중앙선전부에서 개최한 3차례의 회의에서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을 비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회의는 원래 예젠잉(葉劍英)의 건국 30주년 기념 연설에 대한 선전 개요를 토론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런데, 선전 개요의 마지막 부분이 당시의 잘못된 관점에 대한 비판문제였는데,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도 비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⁵⁰⁾ 선전부 회의는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새로 중앙선전부장이 된 후야오방(胡耀邦)의 주재로 상무부부장인 주무즈(朱穆之), 문화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황쥘(黃鎮), 광과국장을 겸임하던 장상산(張香山), 신문과 잡지를 관할하던 라오징단(廖井丹) 등의 부부장과 베이징 소재 사상이론선전부분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7월 6일, 7월 11일, 그리고 7월 13일에 개최되었다.⁵¹⁾ 선전 개요에 대하여 논의하던 과정에서 중앙편역국 국장 왕웨이더(王惠德)가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논쟁이 진행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그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하여는 토론할 수 없고, 토론해서도 안 되고, 토론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하여 비판해야한다는 주장과 그 글의 관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았다.⁵²⁾

48) 馮蘭瑞, 앞의 책, pp. 113-4.

49) 위 책, p. 115.

50) 위 책, p. 116-7.

51) 위 책, pp. 117-9.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후야오방이 이 문제를 재론하기로 하여 11일 다시 논의를 하였는데, 회의 참석자 다수는 그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비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⁵³⁾ 그런데 『인민일보』 부총편집 왕뤄쉐이(王若水)가 그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부장과 부부장들에게 그 글을 읽어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부장 부부장이 모두 그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왕뤄쉐이는 글을 읽은 후 다시 논의하도록 제의하였고 후야오방이 받아들여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⁵⁴⁾

13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왕뤄쉐이가 다시 부장 부부장들에게 글을 읽었는지 여부를 묻자 주무즈만이 글을 읽었는데, 그는 그 글에는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구절이 없지만, “중국이 여전히 마르크스와 레닌이 구상한 공산주의 제 1단계의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하여 왕뤄쉐이가 그 구절은 후차오무가 심사하여 1978년 5월 5일 『인민일보』에 발표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사회주의 원칙을 관철 집행하자”는 글에 근거한 것인데, 거기에서 “실로, 우리의 현재 사회는 마르크스가 구상한 공산주의사회 1단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⁵⁵⁾ 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비판한다는 것은 당의 입장에 대한 수정과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야오방은 선전 개요에서 비판 내용을 삭제하였고 중앙선전부에서는 이후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⁵⁶⁾ 그에 따라 후차오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고 8월 마르크스 레닌 연구회 학술회의에서 자아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쑨샤오즈에게 사과하기까지 했다.⁵⁷⁾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

52) 위 책, p. 117-8.

53) 위 책, p. 118.

54) 위 책, p. 119.

55) 위 책, p. 119.

56) 위 책, pp. 119-20.

발전 단계 문제에 대한 비판의 끝이 아니었다.

쑤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 비판에 대하여 자아비판을 하였던 후차오무가 1979년 말 다시 비판을 시작하고, 1980년 초 중앙선전부에서 ‘반자유화’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자아비판과 사과를 취소하였다.⁵⁸⁾ 또한 1981년 1월 23일 사회과학원 상무위원회에서는 부르주아계급 자유화를 비판하면서 상당수의 그러한 논의가 사회과학원에서 기원한다고 하면서, “중국이 사회주의인가 문제에 대한 논쟁”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1981년 8월 영화대본 “고련(苦戀)” 비판과 관련하여 덩샤오핑의 지시에 의하여 개최된 ‘사상 전선좌담회’에서의 장문의 연설을 발표하면서도 쑤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관점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⁵⁹⁾ 1983년 ‘정신오염청산(清除精神汚染)’ 운동의 과정에서 사회과학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연구소(약칭 마레연구소)’ 문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12월 후차오무는 쑤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⁶⁰⁾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주의 발전 단계 문제에 대한 비판은 198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1984년 이후 개혁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중국의 사회주의가 저발전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된다.

57) 위 책, pp. 121-3.

58) 위 책, pp. 127-8.

59) 위 책, pp. 128-134. 그런데 현장에서 胡喬木의 연설을 들었던 馮蘭瑞와 于光遠 모두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비판 관련 내용은 원래의 연설에는 없었던 것이 발표 과정에서 더해진 것으로 본다(위 책, pp. 134; 于光遠2008b, p. 5). 『三中全會以來』에도 胡喬木이 발표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발표 내용과 ‘적지 않은(不少)’ 차이가 있다고 주석으로 명기하고 있다(胡喬木, 『當前思想戰線的若干問題(1981年8月8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編』 人民出版社, 1982, p. 846).

60) 馮蘭瑞, 위 책, p. 215.

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제기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1987년 중국공산당 13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중국공산당의 문건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역사문제결의”)”이다. 이후 1982년의 12차 당 대회 보고와 1986년 12기 6중전회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 방침(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的指導方針)”에서 다시 제기된 후 1987년 13차 당 대회에서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⁶¹⁾

1981년 “역사문제결의”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최초로 제기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완성되는 데는 장기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의 중점은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비판하는데 있었다.⁶²⁾ 후야오방의 12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며 물질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사회주의 건설 이후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는데 강조의 방점이 있었다.⁶³⁾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유보 없이 중국의 사회성격에 대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86년 12기 6중전회의 결의이다. 결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어,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역사시기 내에는 공유제 주체의 전제 하에서 다양한 경제성분을 발전시키고 공동

61) 于光遠(1998b), 앞의 글.

62) 위 글, p. 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注釋本(修訂)』人民出版社, 1985, p. 61. 그런데 “역사문제결의”에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초급 단계에 처해 있지만 조금도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제도를 건설 하였으며,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어떠한 관점도 착 오이다”라고 선언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5, p. 61).

63) 于光遠(1998b), 앞의 글, p. 5;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1982年9月1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1986, p. 26.

부유의 목표 하에서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先富)’ 장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⁶⁴⁾ 그리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노선의 입문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덩샤오핑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자오쯔양 의 13차 당 대회 보고의 두 번째 부분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로 사회주의를 반드시 견지해야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중국 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단계를 초월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⁶⁵⁾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더 이상 사회주의 발전단계 논쟁과 관련한 비판이 불가능했으며,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에 대한 논쟁은 종언을 고했다. 그것은 역으로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문제가 논쟁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광위엔에 의하면 “역사문제결의”에 초급단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자신과 후차오무의 논쟁의 결과였다. 후차오무는 “역사문제결의” 초안 작성 책임자로서 쑨와 평의 글의 관점을 실명 거론 없이 비판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최소한 중국이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것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후차오무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초급단계의 문제의식을 부차적으로 만들었다.⁶⁶⁾ 또한 12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기초 책임자였던 후차오무가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했다⁶⁷⁾고 표기함

64) 于光遠, 위 글, pp. 5-6;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中國共產黨第12屆中央委員會第6次全體會議1986年9月28日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下, 人民出版社, 1988, pp. 1180-1.

65) 于光遠, 위 글, p. 6; 趙紫陽, 『關於草擬十三大報告大綱的設想(1987年3月21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下, 人民出版社, 1988, pp. 1308-9;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1987年10月5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十三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上, 人民出版社, 1991, p. 9.

66) 于光遠, 위 글, p. 4.

67) 胡耀邦, 앞의 글, p. 27.

으로써 쑨와 평의 주장과 대립되는 관점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위광위엔이 후야오방을 만나 최종 원고 확정 과정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 부분을 포함시켰다. 후차오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후차오무가 강조점 전환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약화시켰다.⁶⁸⁾ 12기 6중전회의의 보고와 13차 당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 “개체경제가 사회주의의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 부분으로 인정하는⁶⁹⁾ 등 중국 개혁의 심화에 주요한 원인이 있으며, 위광위엔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후차오무가 더 이상 보고서의 기초 책임을 맡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⁷⁰⁾

Ⅲ.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 대한 비판과 그 확산 제한의 원인

사회주의발전단계 문제는 1979년 대규모 비판이 준비되었지만 중국공산당의 이론을 관할하는 중앙선전부에서 비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차오무에 의해 반복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선전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쑨와 평의 글을 직접 거명하여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후차오무가 제기한 비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979년 7월 사회과학원에서 쑨와 평의 글에 대하여 제기한 비판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후차오무와 덩리첸이 왜 반복적으로 쑨와 평의 글에 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일까?

68) 于光遠(2008b), 앞의 글, p. 5.

69)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中國共產黨第12屆中央委員會第3次全體會議1984年10月20日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中, 人民出版社, 1986, p. 580.

70) 于光遠(2008b), 앞의 글, p. 5.

평란루이는 개혁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론적 분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후차오무가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배경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비판을 반복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후차오무는 자신과 이론적으로 대립했던 개혁이론가이자 사회과학원 부원장 위광위엔이 그 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위광위엔을 비판하기 위하여 비판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⁷¹⁾ 공산당의 이론적 분화에 대한 평란루이의 관점은 타당하지만 비판의 목표를 위광위엔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란루이는 후차오무가 논쟁을 중국이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간 것은 자신들의 글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지만,⁷²⁾ 그 ‘왜곡’에 논쟁의 지속의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왜곡’은 근본적으로 전술한 1979년 이론공작회의로부터 출발하는 공산당과 이론계에서 나타난 분화와 관련된다. 후야오방을 위시한 개혁파와 개혁파 이론가들은 정치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한다. 이에 비하여 후차오무와 덩리훤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이론가들은 그러한 개혁시도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부르주아 자유화(資產階級自由化)’로 평가한다.

후차오무의 그러한 입장이 잘 반영된 것이 1981년 사상전선문제좌담회에서의 연설이다. 거기서 후차오무는 개혁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인 것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과거로 돌아가 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자본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⁷³⁾ 또한 후차오무는 11기 3중전회 이후 11기 3중전회의 방침과 사상해방을 집행한다는 명분하에서 ‘부르주아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⁷⁴⁾ 후차오무에게는 쑤샤오즈와 평란루이의 글이 바로 그러한 입장을

71) 馮蘭瑞 앞의 책, p. 136.

72) 위 책, p. 128.

73) 胡喬木, 앞의 글, p. 862.

74) 위의 글, pp. 867-8.

대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후차오무와 덩리쑤은 쑤와 펑의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⁷⁵⁾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비판운동 계획이 중앙선전부 회의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가장 엄중한 왕뤄쑤이와⁷⁶⁾ 그에 동의한 후야오방에 의하여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후차오무는 1980년 중앙선전부에서 자신의 사과를 취소하면서 “그때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사과하지 않았다면), 대중들과 거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과도 거리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했다.⁷⁷⁾ 그것은 곧 자신의 사과가 부득이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원래의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황에 변화에 따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판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후차오무는 1979년 말부터 1983년까지 계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다. 그러한 비판은 모두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하여 부파적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후차오무가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재개한 것은 1979년 말 귀뤄지(郭羅基)사건의 발생과 대체로 일치한다. 귀뤄지사건은 베이징대학 철학과 부교수 귀뤄지가 1979년 11월 14일 『인민일보』에 “정치문제는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政治問題是可以討論的)”라는 글을 발표하여 언론 자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건이다. 웨이징성(魏京生)에 대한 재판이 10월 16일에 있었기 때문에, 후차오무가 귀뤄지의 글을 ‘부르주아 자유화’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정치 문제화 했다.⁷⁸⁾ 또한 1980년 4월 1일 중앙선전부의 지식분자 문제에 대한 이론 토론회에서 후차오무는 자

75) 蘇紹智, 『十年風雨: 文革後的大陸理論界』時報出版, 1996, p. 95.

76) 鄧力群은 右측에서 王若水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했다(鄧力群, 앞의 책, p. 139).

77) 馮蘭瑞, 앞의 책, p. 128.

78) 李洪林, 앞의 책, pp. 273-6.

유주의 사상과 방침에 대하여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⁹⁾ 이러한 상황은 후차오무가 자유주의 문제에 대하여 공세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쑨와 평의 글의 관점을 비판한 것이었다.

1981년 초부터 영화대본 『고련(苦戀)』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운동 과정에서 덩샤오핑이 당의 사상문제에 대한 지도가 사상적으로 헤이하고 취약해진 상태라고 비판하였다.⁸⁰⁾ 그러한 상황은 후차오무에게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그해 8월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전국적 규모의 사상전선문제좌담회 연설이었다. 1983년 10월 중국공산당의 12기 2중전회에서 정풍운동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정신오염청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차오무는 다시 사회주의 발전 단계 문제와 관련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후차오무의 의도와는 달리 비판이 확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쑨와 평의 글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에 따라 더 이상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수용은 중국 개혁의 진전에는 상응하는 것이지만 반복되는 반자유화와 그로 인한 개혁파들에 대한 비판과 배제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모순은 중국 개혁의 특징과 더불어 실질적인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의 개혁에 대하여 혹자는 “덩샤오핑이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⁸¹⁾ 그러한 관점은 공산당 통치체제의 내적 변화와 개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4항 기본원칙의 전제하에서 공산당 독재와 (최소한 수사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개혁의 범위를 규정하

79) 盛平 主編, 『胡耀邦思想年譜 1975-1989』 香港泰德時代出版有限公司, 2007, p. 491.

80) 李洪林 앞의 책, pp. 306-311.

81) Susan L.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4.

는 상반되는 원리인 4항 기본원칙과 사상해방이 개혁의 영역별로 불균등하게 작동하였던 것과도 관련된다. 단순화 시켜서 본다면 정치와 이념의 영역은 주로 4항 기본원칙에 의하여 규정되었으며, 경제영역은 사상해방이 중심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은 이념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개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 문제임과 동시에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개혁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경제개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후차오무의 비판은 경제개혁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차오무의 이념과 정치와 관련된 인식은 덩샤오핑의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최소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거리가 있었다.

개혁시기 덩샤오핑의 일관된 인식은 중국이 낙후되어 있으며 생산력 발전이 사회주의의 근본 임무라는 것이었다.⁸²⁾ 또한 사회주의 건설 문제에 대하여는 현실에서 벗어난 단계를 뛰어넘는 ‘좌’의 방법으로는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⁸³⁾ 그것은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⁸⁴⁾ 1987년 8월이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개혁초기부터 일관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덩샤오핑이 부르주아 자유화 비판에 동의하고 당의 사상적 지도가 해이하고 취약하다고 비판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논의에 대한 비판을 확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오무는 자신의 비판의 핵심을 쫓아

82) 鄧小平, 『鄧小平文選』 2卷, 人民出版社, 1994, pp. 128, 163-4.

83) 위 책, p. 312.

84) 鄧小平이 사회주의초급단계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13차 당 대회 직전인 8월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들과 담화하면서이다(鄧小平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pp. 251-2.

핑의 글이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전환시켰지만 그 글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중앙선전부에서도 그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판을 확대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 후차오무의 주장은 형식 논리적으로는 오류이지만 중국의 개혁의 결과와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후 개혁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부정했으며 사상해방의 이름으로 사회주의 개념의 전도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해방은 경제건설 중심을 주창한 덩샤오핑의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후차오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결론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은 개혁파와 보수파가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적 의제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둘러싼 대규모의 논쟁이나 비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회적이고 제한적인 비판과 대립만 있었다. 그것은 보수파에 의하여 제기되고 준비되던 대규모 비판이 중앙선전부의 회의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전부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가 비판에 동의하던 상황에서 비판이 거부된 것은 우연적 요소가 컸으며, 이후 반복된 비판 시도가 좌절된 것은 중국 개혁의 성격과 특징과 관련된다.

그러한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은 중국의 개혁 방향과 내용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 대한 비판 제지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채택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쑨샤오즈와 평란루이의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이행을 하며, 중국은 저발전 사회주의 단계로 사회주의제도가 발전하거나 완비되지 못했으며, 저발전 사회주의의 정책과 발전된 사회주의의 정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⁸⁵⁾ 그것의 핵심은 사회주의 발전단계 구분과 중국의 후진성에 대한 인

정과 저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체계화하여 중국사회에 적용한 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었다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훨씬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었거나 심지어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리훙린은 당시에 논쟁이 금지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전개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훨씬 빨리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⁸⁶⁾ 그러나 그것은 개혁 초기의 사상적 지형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은 새로운 세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혁을 경과한 혁명세대가 주류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문혁시기 그들이 주자파로 비판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자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모자’는 쉽게 씌워질 수 있고 쉽게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반사회주의라는 비판은 수시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비판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속적인 ‘부르주아 자유화’에 대한 반대운동과 그와 부과하여 발생한 사회주의 발전 단계 논쟁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은 경제개혁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치개혁의 지체로 인한 많은 문제를 초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과감한 경제개혁을 가능하게 한 요소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 논쟁이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한 결과와 문예논쟁이나 사회주의에서의 소외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인한 비판과 정치적 배제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사회주의의

85) 蘇紹智·馮爾瑞 앞의 논문, pp. 18-9.

86) 李洪林, 앞의 책, p. 271.

이념이나 근본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문제가 결코 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필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훨씬 개방적이었다.

주제어 :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개혁, 정치논쟁, 사회주의초급단계론, 후차오무

(논문투고 : 2013.6.12 / 논문심사완료 : 2013.6.22 / 논문게재 확정일 : 2013.6.24)

참고문헌

- 안치영, 「1978년 진리표준토론과 그 정치적 의의」, 『한국정치연구』 13집 1호, 2004.
- 안치영, 「모호한 전환점: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에 대한 재고」,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2008.
- 안치영, 「중국의 개혁초기 정치논쟁과 1979년 이론공작회의」, 『중국근현대사연구』 54집, 2012.
- 鄧力群, 『鄧力群自述: 十二個春秋(1975-1987)』 大風出版社, 2006.
- 鄧小平, 『鄧小平文選』 2卷, 人民出版社, 1994.
- 鄧小平, 『鄧小平文選』 3卷, 人民出版社, 1993.
- 三聯書店編輯部 編, 『關於按勞分配問題: 經濟學界1977年3次討論會發言彙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8.
- 三聯書店編輯部 編, 『關於按勞分配問題: 經濟學界1978年第4次討論會發言彙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79.
- 盛平 主編, 『胡耀邦思想年譜 1975-1989』 香港泰德時代出版有限公司, 2007.
- 蕭冬連, 『歷史的轉軌: 從撥亂反正到改革開放』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 蘇紹智, 『十年風雨: 文革後的大陸理論界』 時報出版, 1996.
- 蘇紹智·馮蘭瑞, 「無產階級取得政權後的社會發展階段問題」, 『經濟研究』 1979年 5期.
- 辛力 選編, 「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毛澤東 關於過渡時期, 社會主義社會的部分論述(上)」, 『經濟研究參考資料』 1980年 1月 25日 總 215期.
- 辛力 選編, 「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毛澤東 關於過渡時期, 社會主義社會的部分論述(下)」, 『經濟研究參考資料』 1980年 1月 26日 總 216期.

- 于光遠, 「我承認自己是‘唯生產力論者」, 『于光遠短論集(1977-2001)』 1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pp. 18-20.
- 于光遠, 「背景與論題: 對改革開放初期若干經濟理論問題討論的回顧」, 『經濟科學』 2008年 6期.
- 于光遠, 「從‘階段風波’到‘社會主義初級階段」, 『炎黃春秋』 2008年 8期.
- 劉國新 外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史長編 第4卷 1978-1991』 天津人民出版社, 2010.
- 李寧, 「1979年‘階段風波’的思想史解讀」, 『貴州財政學院學報』 2009年 6期.
- 林子力·有林, 「歷史唯物論還是歷史唯心論?: 對‘四人幫’批判唯生產力論’反批判」, 『哲學研究』 1978年 1-2期, pp. 3-29.
- 錢梓理, 『歷史的變局: 從挽救危機到反修防修』, 香港中文大學出版社, 2008.
- 程非, 「“社會主義社會發展規律問題”學術討論會討論要點」, 『經濟研究參考資料』 增刊, 1979年 12月 31日.
- 趙紫陽, 「關於草擬十三大報告大綱的設想(1987年3月21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下, 人民出版社, 1988, pp. 1307-1309.
-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1987年10月5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上, 人民出版社, 1991, pp. 4-61.
- 朱述先, 「也談無產階級取得政權後的社會發展階段問題: 與蘇紹智·馮蘭瑞商榷」, 『經濟研究』 1979年 8期.
-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中國共產黨第12屆中央委員會第3次全體會議1984年10月20日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中, 人民出版社, 1986, pp. 558-587.
- 中共中央, 「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中國共產黨第12屆中央委員會第6次全體會議1986年9月28日通過)」,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 下, 人民出版社, 1988, pp. 1173-1190.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 注釋本(修訂)』人民出版社, 1985.
-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關於國際共產主義運動總路線的建議: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對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1963年3月30日來信的復信(1963年6月1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6冊), 中央文獻出版社, 1997, pp. 417-468.
- 馮蘭瑞, 「金日成同志關於過渡時期問題的一些論述」, 『經濟研究參考資料』1980年 1月 26日 總 216期.
- 馮蘭瑞, 『別有人間行路難: 1980年代前後中國思想理論風雲及其他』時代國際出版有限公司, 2005.
- 韓鋼, 「最初的突破: 1977, 1979年經濟理論大討論述評」, 『中共黨史研究』1998年 6期.
- 胡喬木, 「當前思想戰線的若干問題(1981年8月8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三中全會以來 重要文獻選編』人民出版社, 1982, pp. 846-890.
-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1982年9月1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 重要文獻選編』上, 人民出版社, 1986, pp. 6-62.
- 『李先念傳』編寫組·鄂豫邊區革命史編輯部, 『李先念年譜』5卷, 中央文獻出版社, 2001.

Goldman, Merle, "Hu Yaobang's Intellectual Network and the Theory Conference of 1979", *The China Quarterly*, Vol. 126, 1991.

Schoenhals, Michael, "The 1978 Truth Criterion Controversy", *The China Quarterly*, Vol. 126, 1991.

Shirk, Susan L.,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Tsou, Ta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Post-Mao Reforms: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The Chinese Political Controversy in the Early Reform Years and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Ahn, Chi-young

There has been a lot of political controversies about the reform agenda in Chinese early reform years. This article focus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ut little known.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two backgrounds of the controversy. One is the controversies over the stages of the socialis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especially with the formulation of the general line for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 1953. The other is the theory controversies around the early reform year over the reform agenda.

This article investigate the processes of the controversy over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The controversy was started by the article "On the Problem of the Social Development Stages after the Proletariat Revolution," which was co-written by Su Shaozi and Feng Ranrui.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Hu Qiaomu-the chinese theorist-Czar and Deng liqun-the conservative ideologue criticised that the article refused that the PRC was the socialist state. But the criticism was prevented by the CCP Central Committee Propaganda Department, because it concluded that Su Shaozi and Feng Ranrui did not assert that

the PRC was not socialist country. But until the deepening of the reform in 1984 and the settlement of the theory of the primary stage of the socialism, Hu Qiaomu repeated his critics intermittently.

Although there had repeated the anti-Liberalization Campaign, Hu Qiamu's critics on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did not diffused.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form. On the aspect that the political changes did not correspond to the economic changes, the Chinese reform was the economic reform without the political reform. But it means what was the need for economic reform was accepted notwithstanding not corresponding to the political reform.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was needed for the economic reform although it had some contradiction to the socialist theory.

Key Words : The stage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 theory, the chinese reform, the political controversy, the primary stage of socialism, Hu Qiaomu.

